

가족탄력성, 자기결정성, 진로결정 몰입의 구조적 관계 분석

이지혜* · 이재신**1) · 류진숙***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교수* · 충북대학교 교수** · 충북대학교 강사***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Family Resilience, Self-Determination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Lee, Ji Hye* · Lee, Jae Shin**1) · Lyu, Jin Suk***

Local Educational Policy Research Institute, Research Professor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art-time lecture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relations among family resilience, self-determination(autonomy, perceived competence, relatedness)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etermination(autonomy, perceived competence, relatedness) in the process by which family resilience affecte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77 college students in the Chungbuk and Kyungpook province. AMOS 7.0 was employ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ollege students' family resilience had a direct impact on college students' self-determination(autonomy, perceived competence, relatedness)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Second, students' self-determination(autonomy, perceived competence, relatedness) had a direct impact on students' commitment to career choice. Third, it was found students' self-determination(autonomy, perceived competence, relatedness) was a mediating fac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family resilience,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Key words: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 진로결정 몰입(Commitment to career choice),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직업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자아실현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행복한 삶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결정하고 그러한 진로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직업탐색의 강도가 높을수록 취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취업 속도가 빨라진다는 연구결과(Saks & Ashforth, 2002)를 통해서도 진로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특정한 직업에 대한 선호를 명확히 하고 진로결정에 강력한 애착을 보이며 진로목적을 위해 꾸준한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Blau, 1988; Harren, 1979)하는 진로결정 몰입(commitment to career choice)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Marcia(1993)는 진로를 잠정적으로 결정한 후 이를 구체화, 특수화 시키는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안감, 의심, 공포 등의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감소시키기 위한 진로결정 몰입을 청소년의 꼭 필요한 발달과업으로 꼽고 있다. 실제 다수의 연구(Blustein, 1988; Harren, 1979; Philips & Pazierna, 1988)에서 진로결정 몰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은 자신의 직업선택을 실제로 실행할 때에도 안정된 심리상태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직업생활을 영위하고, 진로결정 몰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을 선택하고 이를 실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겪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직업심리학과 청소년 발달학에서는 진로결정 몰입을 후기 청소년기와 전기 성인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결정 몰입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후기 청소년기와 전기 성인기에 속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결정 몰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학생의 진로결정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변수 설정에 있어서는 개인의 외적 변수와 내적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진로

연구의 접근방식(Lent, Brown, & Hackett, 1994)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외적 변수인 가족탄력성과 내적 변수인 자기결정성을 진로결정 몰입의 영향 변수로 설정하고 이들 변수 간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은 가족이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적응적이 되고 변화에 직면하여 위협에 적응하도록 돕는 가족의 특징, 차원,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김미옥, 2001). 가족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국외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정신분열증 가족, 장애 아동가족, 뇌성마비 가족, 만성질환 가족, 결혼이민 여성 가족 등 현재 가족의 문제를 갖고 있는 연구대상들이 주가 되었고, 아직까지 가족탄력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진로 연구도 이제 가족탄력성을 변수로 포함시켜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다. 진로결정 몰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도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가족변수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를 중심으로 관계를 추측해보았다.

Whiston과 Keller(2004)는 부모의 이혼, 재혼, 별거 등의 가족요인이 진로결정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최수정·정철영(2007)도 가족결과는 진로결정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비정서적 가족과정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다양한 맥락적인 요인 중에서도 진로결정 몰입수준의 경우 가족의 구조적 특성이나 의사소통 수준 등이 개인의 몰입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되고 있다(Osipow, 1983). 이와 같은 가족변수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가족탄력성도 진로결정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개인 내적 특성 중 하나인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은 Deci와 Ryan(1985)에 의해 제안된 개념으로, 내재적 동기의 결정요인으로 알려졌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특히 내재적 동기를 촉진시키거나 저해하는 환경에 관심을 두는데, 개인은 적절한 사회환경적 조건에 처할 때 내재적 동기가 발현되고,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에 대한 기본심리욕구가 만족될 때 내재적 동기가 증진된다고 본다(김아영, 2010). 이러한 주장은 자기결정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위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구분하여 다루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을 잠재변수로

두기 보다는 명시적으로 구분되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각각 잠재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특성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개념과 하위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개념을 함께 다루었다. 기본심리욕구들의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자율성은 외부로부터의 통제나 압력 없이 자신의 행동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욕구이고, 유능성은 개인의 능력을 행사하여 주어진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를 원하는 내적 욕구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관계성은 사회적 맥락 하에서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추구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구로 소속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이지혜, 2009). Deci와 Ryan(2000)은 인간이 정서, 인지, 행동에서 적응적, 기능적 발달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면 내재적 동기가 유발되어 탐색행동을 비롯한 창의적 행동, 긍정적인 정서적 반응, 자존감, 유연한 인지적 처리, 삶의 만족, 수행 그리고 끈기 등이 촉진된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자기결정성 이론은 주로 교육, 육아, 건강관리, 친밀한 관계, 종교적 행위, 신체적 운동, 정치적 행위, 그리고 환경 친화적 행위 등의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Deci & Ryan, 2000). 최근 들어 이를 진로발달을 이해하는 틀로 사용한 연구들(한주옥, 2004; Blustein, 1988; Blustein & Flum, 1999; Flum & Blustein, 2000; Guay et al, 2003)이 제시되었다. Blustein(1988)의 연구에서는 내재적 동기성향이 강할수록 자신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진로의사결정 과정에 유용하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Guay(2003)의 연구에서는 진로를 결정하는 활동을 할 때 자율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의 한주옥(2004) 연구에서도 지지되었다. 이를 통해서 자기결정성 정도가 높을수록 진로 결정에 더 적극적으로 몰입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론과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적 변수인 가족탄력성과 개인 내적 특성인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모두 진로결정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계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탄력성과 자기결정성의 관계는 다음의 연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Abery(1994)의 자기결정에 대한 생태학적 모

델을 보면 자기결정과 관련된 구조적 환경으로 가족, 학교, 고용, 그리고 동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Cook 등(1996) 역시 인간의 첫 사회적 환경이 가족이기 때문에 자기결정의 첫 상황을 배우는 곳은 가정이라고 하였고, Abery와 Eggebeen(1993)도 가족 상황에서 아동의 자기결정 획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제의 기회가 학습된다고 하였다.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결정능력 수준이 높아진다는 최소정(2005)의 연구 또한 이를 지지하고 있어 가족탄력성이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개연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가족탄력성, 자기결정성, 그리고 진로결정 몰입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가족탄력성을 외생변수로,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과 진로결정 몰입을 내생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부모와 친구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율성과 유능성을 느끼면서 진로미결정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Guay 등(2003)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족탄력성이 진로결정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매개변수의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하고 구조적 관계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몰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진로결정 몰입 증진을 돕기 위한 보다 통합적인 접근의 실증적인 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족탄력성

탄력성(Resilience)의 개념은 ‘탄성’, ‘회복력’, ‘복원력’ 등을 뜻하는 말로 역경으로부터 다시 일어나 강해지고 자원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위기와 도전에 대한 반응으로 인내하고 성장해 가는 역동적 과정을 의미한다(Walsh, 1998). 이러한 탄력성의 개념은 정신 병리가 예상되는 역경적 상황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능하게 기능하는 아동에 대한 연구에서 출발한 개념이다(Garmezy,

1991; Mastern, 1994; Rutter, 1987). 즉 위기와 역경의 상황에 직면하여 건강하게 잘 적응함과 더불어 한 단계 더 나은 성장을 이루는 능력을 탄력성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의 개념은 이러한 탄력성 개념이 가족에게 적용된 것으로 가족스트레스와 적응이론에서 도출된 이념들에 그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는데 특히 만성적인 역경에 노출된 가족에게 있어서 적응의 과정을 강조하는 스트레스 모델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Patterson, 2002). 가족탄력성을 Walsh(1998)는 하나의 기능적 단위로서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대처와 적응의 과정으로서, McCubbin(1988)은 가족이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여 적응을 이루고 변화에 대응하여 혼란에 빠지지 않게 저항하도록 돕는 가족의 특성, 자원, 지원 등으로 정의하였다. Hawley와 DeHaan(1996)은 가족탄력성을 가족이 스트레스에 직면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적응하고 변형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으로 개념화 하였으며, Hawley(2000)는 가족탄력성을 헌신(commitment), 의사소통(communication), 응집력(cohesion), 적응력(adaptability), 영성(spirituality), 연결성(connectedness), 함께 시간을 보냄(time together), 효율성(efficacy)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규명하였다. 이상의 다양한 정의를 바탕으로 가족탄력성을 가족이 위기와 스트레스에 적응하고 역경으로부터 회복하는 능력(Hawley & Degaan, 1996)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자기결정성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은 Deci와 Ryan(1985)에 의해 제안된 개념으로 개인의 행동조절 유형을 자율성의 정도를 가지고 구분하며, 내재적 동기의 결정요인이라고 하였다. 즉 자기결정성이 증가할수록 내재적 동기가 높아진다는 것이다(Ryan & Deci, 2000). 자기결정성 이론은 사람들이 자율성(autonomy), 유능성 지각(perceived 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의 세 가지 기본 심리욕구를 갖는다고 제안한다(Deci & Ryan, 2000; Levesque et al., 2004).

자율성은 자신이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주체이고 조절자라는 신념이다. 자율성에 대한 욕구는 자신의 행동을 자발적인

것으로 경험하려는 기본욕구와 관련이 있다(deCharms, 1968; Ryan & Cinnell, 1989). 귀인의 측면에서 보면 자율적인 행동은 내적 인과소재를 갖는다(Ryan & Cinnell, 1989). 외부로부터의 통제나 압력 없이 자신의 행동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욕구를 나타내는데, 개인이 행동의 주체가 되어 의사결정권을 갖고 활동이나 직무에 대하여 가치를 인식할 때 자율적이라고 느끼게 된다. 또한 사람들은 행동의 근원이나 주체가 자신에게 있다고 느끼기를 원하고,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는 조절자라고 믿으며, 자기에게 중요한 것과 가치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한다는 것이다(Ryan & Deci, 2000).

한편 유능성은 개인의 능력을 행사하여 주어진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를 원하는 내적 욕구를 의미하며, 타인으로부터의 긍정적인 피드백이나 개인의 성공적 과제수행을 경험함으로써 충족된다. 유능성 개념은 동기이론에서 긍정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지각된 능력, 기대감, 통제 개념과 비슷하며, 지각된 유능성이 학습 및 성취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즉 유능성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에 비추어서 최적의 도전을 추구하고, 행위를 통해서 이러한 기술과 역량을 유지하며, 향상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게 한다. 따라서 유능성 욕구는 획득한 기술이나 역량 자체라기 보다는 개인이 자신의 유능하다고 느끼고 싶어하는 지각에 대한 것이다. 유능성 욕구는 사회적 환경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기회가 주어질 때 충족된다.

관계성은 소속의 욕구처럼 대인 관계적 유대를 강하고 안정적으로 형성하려는 경향성으로(Baumeister & Leary, 1995) 다른 사람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경험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과 함께 하려는 열망이다(Ryan & La Guardia, 2000). 좀 더 구체적으로 관계성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느낌을 말한다. 사람들은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타인이 자신을 배려한다고 느끼며, 자신이 어떤 사회에 속해 있다고 느끼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Ryan & Deci, 2000). 따라서 관계성 욕구는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지역사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기를 원하는 소속감에 대한 욕구나 친애의 욕구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3. 진로결정 몰입

진로결정 몰입(commitment to career choice)은 특정한 직업에 대한 선호를 명확히 하고 진로결정에 강력한 애착을 보이며 진로목적을 위해 꾸준한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Blau, 1988; Harren, 1979). 이와 같은 진로결정 몰입은 Marcia(1993)와 Erikson(1968)에 의해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자아정체감 형성과 진로발달 과정이 매우 흡사한 발달과업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발달한 개념이다.

진로결정 몰입은 몰입(commitment)과 탐색(exploration)이라는 두 가지의 발달과업을 하위요소로 가지고 있다(Harren, 1979). 이때 몰입은 진로배제 경향(tendency to foreclose)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배제(foreclose)는 자신의 진로목표를 제외한 다른 진로대안들을 미리 막는다(stop something before it happens, preclude)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것은 자신이 결정한 직업이나 진로목표에 강력하게 애착하고 이를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진로배제 경향이 강한 개인은 특정한 직업선택에 대한 믿음이 강력하며, 모호함, 불안감, 인지적 불일치, 불편함 등을 인지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성이 보다 강력하게 자신의 진로에 몰입하도록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반대로 진로배제 경향이 약한 개인은 모호함을 견뎌내는데 편안함을 느끼고 이는 계속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몰입을 이루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진로결정 몰입의 두 번째 하위요소인 탐색(exploration)은 크게 자신의 특성에 대한 탐색, 직업정보에 대한 탐색, 진로대안들에 대한 탐색으로 나누어진다(Blustein & Stropher, 1987). 즉, 잠정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모든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탐색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탐색이라는 발달과업은 대체로 몰입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발달과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충분한 탐색 없이 직관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여 몰입하거나 가족의 요구에 기초하여 진로를 결정하는 등의 부정적인 진로결정 몰입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로결정 몰입 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단지 자신의 결정에 몰입하고 있는 상태뿐만 아니라 몰입을 위해 충분한 진로탐색이 이루어졌는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가족탄력성, 자기결정성, 진로결정 몰입과의 관계

대학생의 가족탄력성, 자기결정성 그리고 진로결정 몰입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가족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가족탄력성과 자기결정성과의 관계이다. Abery(1994)의 자기결정에 대한 생태학적 모델을 보면 자기결정과 관련된 구조적 환경으로 가족, 학교, 그리고 동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Cook 등(1996) 역시 인간의 첫 사회적 환경이 가족이기 때문에 자기결정의 첫 상황을 배우는 곳은 가정이라고 하였고, Abery와 Eggebeen(1993)도 가족 상황에서 아동의 자기결정 획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제의 기회가 학습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자기결정성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가족응집성이 높고 가족성원간에 심리적 유대가 강하게 나타나는 건강한 가족일수록 아동의 자기결정능력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는 최소정(2005)의 연구 또한 이를 지지하고 있어 가족탄력성이 자기결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개연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결정성의 기본 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각각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즉 가족탄력성이란 가족이 역경에 직면하기 이전에는 문제를 예방하고, 역경에 직면하였을 때는 협동, 타협, 상호 노력 등의 효과적 대처전략을 통하여 긍정적 적응을 성취하는 과정(Werner, 1989)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자발적인 것으로 경험하려는 기본욕구인 자율성 뿐만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욕구(Deci & Ryan, 1985)인 유능성, 그리고 타인과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Deci & Ryan, 1985)인 관계성 또한 충족되어질 것으로 접근할 수 있다.

가족탄력성과 진로결정 몰입과의 관계 또한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Whiston과 Keller(2004)는 부모의 이혼, 재혼, 별거 등의 가족요인이 진로결정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최수정·정철영(2007)도 가족결과는 진로결정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비정서적 가족과정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Osipow(1983)도 다양한 맥락적인 요인 중에서도 진로결정

몰입수준의 경우 가족의 구조적 특성이나 의사소통 수준 등이 개인의 몰입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가족탄력성도 진로결정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자기결정성과 진로결정 몰입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lustein(1988)의 연구에서는 내재적 동기성향이 강할수록 자신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진로의사결정 과정에 유용하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Guay(2003)의 연구에서는 진로를 결정하는 활동을 할 때 자율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의 한주옥(2004) 연구에서도 지지되었다. 이를 통해서 자기결정성 정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더 적극적으로 몰입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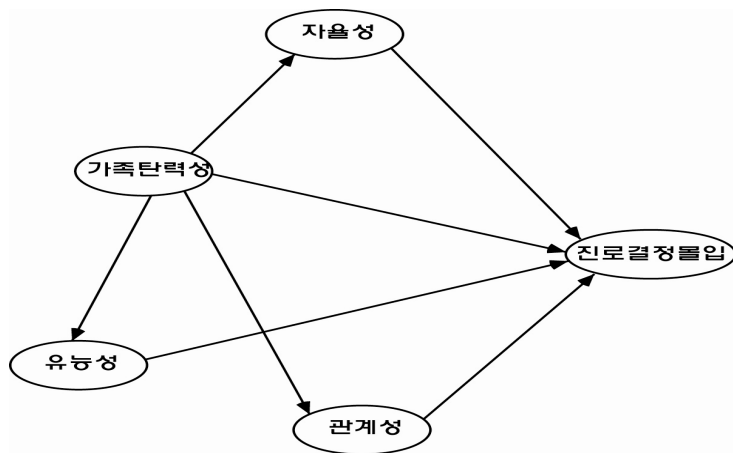
그리고 자기결정성의 기본 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과 진로결정 몰입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율성과 관련하여 Blustein(1988)의 연구에서 자율적 동기성향은 통제적 동기 성향보다 진로탐색과 강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유능성의 경우도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진로결정효능감과 같은 유능성의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기학, 이학주, 2000; 이상희, 2005). 또한 가족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수록 진로미결정과 부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Felsman & Blustein, 1999)를 통해서도 관계성이 진로결정 몰입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해서 가족탄력성은 자기결정성과 진로결정 몰입에 그리고 자기결정성(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은 진로결정 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와 친구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율성과 유능성을 느끼면서 진로미결정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Guay등(2003)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가족탄력성이 진로결정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자기결정성(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매개변수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모형과 가설은 다음과 같다.

III.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 모형

구조방정식 모형에는 외생변수와 내생변수가 있는데, 외생변수는 영향을 받지 않고 주지만 하는 변수를 말하며, 내생변수는 영향을 받으면서 주거나, 영향을 받기만 하는 변수를 말한다. 흔히 통용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구분해 보면 외생변수는 독립변수와 같다. 그러나 내생변수는 영향을 받으면서도 주는 매개변수와 영향을 받기만 하는 종속변수



[그림 1] 연구모형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가족탄력성은 의생변수, 자기결정성(자율성, 유능성, 관계성)과 진로결정 몰입은 내생변수, 그리고 자기결정성(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은 매개변수에 해당한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2. 가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대학생의 가족탄력성은 자기결정성(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진로결정 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대학생의 자기결정성(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은 진로결정 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대학생의 가족탄력성은 자기결정성(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통하여 진로결정 몰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표집대상은 충북지역과 경북지역에 위치한 대학교 4개 교에 재학 중인 308명의 대학생들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2011년 6월 중 연구자가 직접 수업에 참여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이라고 판단되는 31명을 제외한 277명의 대학생이 최종 연구대상으로 분류되었다.

2. 도구

가. 가족탄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가족탄력성을 선행연구 및 McCubbin

& McCubbin(1993)의 모델을 근거로 가족 강인성, 가족 응집성, 의사소통, 문제해결 및 대처전략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가족강인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는 McCubbin, McCubbin & Thompson(1993)에 의해 개발된 FHI(Family Hardines Index)를 이선애(2004)가 10문항으로 추출한 것이다. 가족응집성은 이선애(2004)의 연구에서 Olson, Portner, & Lavee(1985)가 개발한 가족 적응성 및 응집성 평가척도 III (Family Adaptability &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 FACES-III) 중 응집성 항목만을 추출한 도구로 총 10문항이다. 의사소통 척도는 McCubbin, McCubbin & Thompson(1993)이 개발한 10문항의 가족문제 해결 의사소통(FPSC : Family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도구를 오승아(2000)가 변안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7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문제해결 및 대처전략은 McCubbin et al.(1981)이 개발한 총 30문항의 F-COPES(Family Crisis Oriented Personal Evaluation Scales)도구 중 이선애(2004)가 20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가족탄력성 척도는 모두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85, 각 하위요인별로 가족강인성은 .82, 가족응집성은 .89, 의사소통은 .93, 문제해결 및 대처전략은 .87이었다.

나. 자기결정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잠재변수로 설정하였다. 척도는 김은주(2007)의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대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수정, 제작하여 사용한 자율성 문항과 한국 교육종단연구(2005)의 설문문항 중 일부를 활용한 유능성과 관계성의 문항들을 5점 Likert식 척도로 활용하였다. 신뢰도는 전체 .85, 하위요인별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은 각각 .75, .85, .93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성

자율성은 자신의 행동을 자발적인 것으로 귀인하려는 내적 인과소재를 가리킨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본 연구의 측정변수인 자율성 1은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내용과 관련되고, 자율성 2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 자율성 3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결정 기회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다.

2) 유능성

유능성은 환경과 효능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대학에서 수강하는 과목에 대한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유능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유능성 1은 수강 과목 내용의 이해, 유능성 2는 수강 과목에서 제시된 복잡한 문제 해결, 유능성 3은 수강 과목의 과제해결 능력에 대한 지각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3) 관계성

관계성은 사회적 맥락에서 유의미한 타인들과 연관을 지으면서, 단단한 연결을 추구하고 발전하는 것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의 관계성 측정변수인 관계성 1은 대학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 관계성 2는 타인이 자신에 대한 이해 정도, 관계성 3은 타인과의 친밀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다. 진로결정 몰입 척도

진로결정 몰입을 측정하기 위하여 Blustein, Ellis, Devenis(1989)의 CCCS(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Scale)를 변안한 최수정(200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진로결정 몰입의 하위요인은 진로탐색 및 몰입과 진로배제 경향이다. 진로탐색 및 몰입을 측정하기 위하여 Blustein, Ellis, Devenis(1989)의 진로결정 몰입 검사도구 CCCS(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Scale) 중 진로탐색 및 몰입도구 VECS(Vocational Exploration and Commitment Scale)를 사용하였다. 반응형식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몰입 수준이 낮은 “미몰입단계(uncommitted phase)”인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적 방향성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 문항을 역채점 하였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몰입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진로배제 경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Blustein, Ellis, Devenis(1989)의 진로결정 몰입 검사도구

CCCS(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Scale) 중 배제경향 검사도구 TTFS(Tendency To Foreclose Scale)를 사용하였다. 반응형식은 5점 Likert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는 전체 .86, 하위요인별로 진로탐색 및 몰입은 .76, 진로배제 경향은 .84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수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가족탄력성, 자기결정성, 진로결정 몰입의 상호상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15.0을 활용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셋째,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검증을 위하여 AMOS 7.0을 활용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계수 추정방법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평가방법에는 χ^2 검증을 이용하는 방법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χ^2 검증은 표본크기에 민감하고, 영가설이 상당히 엄격하므로 χ^2 검증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모형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였으며, 적합도 평가지수의 기준이 확립된 RMSEA, GFI, TLI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RMSEA는 .05이하라면 표본과 모형의 오류가 아주 작은 매우 양호한 모형으로 평가하고, .05에서 .08 사이면 오류의 정도가 적절한 정도로 괜찮은 모형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GFI와 TLI값의 기준은 .9이상인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문수백, 2009).

넷째, 가설적 모델이 자료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교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확인하여 그 값이 4 이상인 교정지수를 가진 경로를 추가하는 식으로 모형수정을 시도하여 모델의 간명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적합 모형을 탐색하였다.

다섯째, 최종모형을 확정된 후, 각 변수들 간에 존재하는 경로의 의의도와 설명력(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을 검증하였다. 이때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하

〈표 1〉 가족탄력성, 자기결정성(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진로결정 몰입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가족강인성	1													
2. 가족응집성	.666**	1												
3. 의사소통	.566**	.721**	1											
4.문제해결및대처전략	.356**	.506**	.612**	1										
5. 자율성1	.140*	.147*	.183**	.286**	1									
6. 자율성2	.287**	.279**	.300**	.390**	.395**	1								
7. 자율성3	.186**	.179**	.279**	.482**	.254**	.308**	1							
8. 유능성1	.232**	.141*	.139*	.121*	.040*	.000*	.085*	1						
9. 유능성2	.230**	.107	.162**	.187**	.062*	.072*	.115*	.787**	1					
10. 유능성3	.279**	.116	.215**	.118*	.037*	.084*	.089*	.554**	.622**	1				
11.관계성1	.261**	.152*	.138*	.078	.01*1	.129*	.123*	.214**	.270**	.426**	1			
12. 관계성2	.256**	.218**	.199**	.177**	.036*	.100*	.202**	.252**	.256**	.427**	.715**	1		
13. 관계성3	.250**	.204**	.190**	.130*	.046*	.186**	.121*	.265**	.259**	.404**	.784**	.769**	1	
14. 진로탐색및몰입	.395**	.272**	.411**	.252**	.144*	.291**	.151*	.344**	.376**	.383**	.313**	.268**	.351**	1
15. 진로배제경향	.142*	.090	.207**	.078	.081	.055	.124*	.210**	.229**	.230**	.183**	.213**	.223**	.328**

** $p < .01$

여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랩은 모수의 분포를 알지 못할 때 모수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시키는 방법으로, 구조모형의 모든 모수추정치들의 표본분포를 추정하여, 근사적인 표준오차 및 신뢰구간, 유의확률을 구하는 유용한 방법이다(김계수, 2007).

해결 및 대처전략은 관계성1, 진로배제 경향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자율성2와 자율성3 역시 진로배제 경향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대학생의 가족탄력성,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그리고 진로결정 몰입은 상호상관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연구결과 및 해석

1. 관측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관측변수들 간의 상호상관 관계를 알아본 결과, <표 1>과 같이, 대부분의 관측변수들이 서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반면, 가족응집성은 유능성2, 유능성3, 진로배제경향과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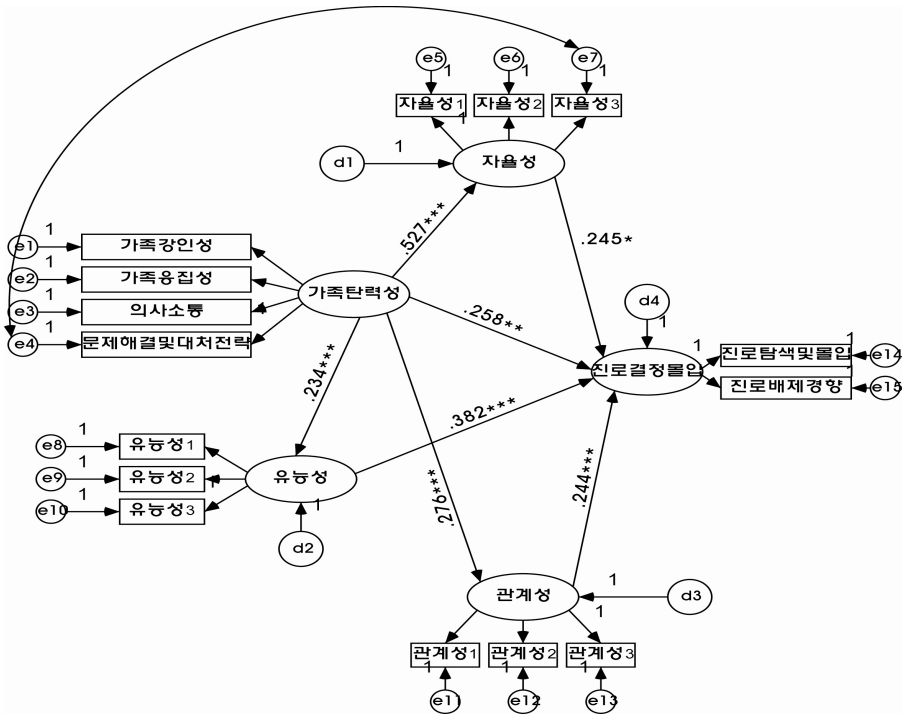
2. 연구모형 검증 결과

대학생의 가족탄력성, 자기결정성(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진로결정 몰입의 관계에 대한 모형 검증 결과는 <표 2>와 같다.

가설을 바탕으로 설정한 초기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277.213$, $df=83$, $p=.000$, RMSEA는 .092, GFI는 .887, TLI는 .870으로 RMSEA 값과 GFI, TLI 값이 기준에 적합

〈표 2〉 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χ^2	RMSEA	GFI	TLI
기준	확률값 .05이상	.05 ~ .08: 양호	.9이상	.9이상
연구모형	277.213 ($df=83$, $p=.000$)	.092	.887	.870
최종모형	240.366 ($df=82$, $p=.000$)	.084	.917	.900



* 주: 실선이 유의미한 경로임

[그림 2] 최종 모형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수정지수가 4를 초과한 오차항 e4와 e7의 문항내용을 확인한 후, 공분산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김계수, 2007)되어 양방향 화살표로 연결하였다. 이를 다시 검증한 결과, 적합도 지수는 $\chi^2=240.366$, $df=82$, $p=.000$, RMSEA는 양호한 기준에 근사한 .084, GFI와 TLI 각각 기준에 적합한 .917, .900 이었다. 따라서 최종 경로모형은 [그림 2]와 같으며,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가족탄력성은 자기결정성 중 자율성($\beta=.527$, p

$=.000$), 유능성($\beta=.234$, $p=.000$), 관계성($\beta=.276$, $p=.000$), 진로결정 몰입($\beta=.258$, $p=.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모두 진로결정 몰입($\beta=.245$, $p=.05$; $\beta=.382$, $p=.000$; $\beta=.244$, $p=.000$)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대학생들의 가족탄력성과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은 진로결정 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3> 진로결정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탄력성과 자기결정성(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총효과 분해 결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가족탄력성 → 자율성	.527***	-	.527***
가족탄력성 → 유능성	.234***	-	.234***
가족탄력성 → 관계성	.276***	-	.276***
가족탄력성 → 진로결정 몰입	.258**	.286*	.544**
자율성 → 진로결정 몰입	.245*	-	.245*
유능성 → 진로결정 몰입	.382***	-	.382***
관계성 → 진로결정 몰입	.244***	-	.244***

〈표 4〉 진로결정 몰입에 대한 간접효과와 상세 분해

경로	간접효과 크기
가족탄력성 → 자율성 → 진로결정 몰입	.129
가족탄력성 → 유능성 → 진로결정 몰입	.089
가족탄력성 → 관계성 → 진로결정 몰입	.067

모형의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기 위한 총효과(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분해는 <표 3>과 같다. 우선 가족탄력성은 $p < .01$ 수준에서 자율성에 $\beta = .527$, 유능성에 $\beta = .234$, 관계성에 $\beta = .276$, 진로결정 몰입에 $\beta = .544$ 의 총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성은 진로결정 몰입에 $\beta = .245$, 유능성은 진로결정 몰입에 $\beta = .382$, 관계성은 진로결정 몰입에 $\beta = .244$ 의 총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몰입에 변수들이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잠재 변수들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중심으로 상세 분해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간접효과는 잠재변수들 간의 직접효과를 곱한 것이다. 진로결정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중에서 ‘가족탄력성 → 자율성 → 진로결정 몰입’의 경로가 .129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가족탄력성 → 유능성 → 진로결정 몰입’의 경로가 간접효과 .089이었다. 간접효과가 가장 작은 경로는 .067의 효과를 가진 ‘가족탄력성 → 관계성 → 진로결정 몰입’의 경로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가족탄력성이 진로결정 몰입으로 이르는 경로에는 자율성이 가장 큰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몰입에 관심을 갖고 진로결정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외적 변수와 내적 변수와의 통합적 관계를 분석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적 변수로 가족탄력성을, 내적 변수로 자기결정성을 선정하였다.

검증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논의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가족탄력성은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인 자

율성, 유능성, 관계성과 진로결정 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족변인이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결과(최수정, 정철영, 2007; Osipow, 1983; Whiston & Keller, 2004)를 지지하는 것으로, 가족구성원 간의 심리적 유대가 강하게 나타나는 건강한 가족의 일원일수록 자기결정성의 정도와 진로결정 몰입 단계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가족탄력성에는 스트레스나 위기상황에 대한 취약성이라는 ‘위험요인’과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는 적응력, 회복력, 유능성, 위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등의 ‘보호요인’이 함께 존재한다. 이 때 ‘보호요인’은 예방과학적 차원에서 가족의 탄력성을 유지·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박지현, 2009), 이러한 보호요인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상담 및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좋은 예로,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전문교과로 운영하고 있는 Y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다. Y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의식하고 가족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전문교과를 운영한 결과, 가족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는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예는 학교교육을 통해서도 가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가족에 대한 교육을 공식적인 학교교육을 통해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생활주기의 단계별 접근이 그 가족의 삶의 역동성을 반영하고 더욱 적합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탄력성의 수준별 접근에 근거한 상담 또한 더욱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박지현, 2009).

둘째,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모두 진로결정 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Guay(200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율성을 지각하는 것이 결국에는 진로결정 몰입의 수준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자기결정성의 잠재변수로 설정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욕구가 모두 진로결정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세 가지 욕구가 모두 충족되어질 때 더 높은 수준에서 진로결정 몰입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주옥(2004)은 개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율성이 얼마나 보장된다고 지각하느냐에 따라 자기결정성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결정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알맞은 사회 환경적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율성은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권대훈, 2009) 진로결정에 있어서 학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자율성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수업장면에서 교수는 학생의 수행이나 행동에 끊임없이 평가하고 다른 학생과 비교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것을 피해야 한다(김아영, 2010). 결론적으로 학생의 행동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 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내포하고 있으므로 좀 더 자율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유능성 욕구에 대한 충족은 다양한 성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유능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김아영, 2010). 구체적으로 유능성 지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권대훈, 2009)이므로 학생이 도전 가능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유능성 욕구 또한 충족될 것이다. 유능감 증진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이다. 현재 자신의 위치와 앞으로 얼마나 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감각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상 또한 통제적인 것이 아닌 정보적인 보상이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참여 자체에 대한 보상이 바람직하다(김아영, 2010).

마지막으로 관계성 욕구는 중요한 타인이 관심을 갖고 배려할 때 충족될 수 있으므로(권대훈, 2009) 학생 개인을 존중해 주는 분위기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수는 수업장면에서도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며, 학생들이 자기존중감을 느낄 수 있도록 대해야 한다. 또한 협동체계 수업을 적용하여 학생 개개인에 대한

보상보다는 팀에게 보상을 준다면 학생들 간의 긍정적 관계 형성으로 관계성 욕구가 충족될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자기결정성의 구성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방식으로 대학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결정에 더 적극적으로 몰입하게 될 것이다.

셋째, 가족탄력성이 진로결정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자기결정성이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의 외적 변수와 내적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진로 연구의 접근방식(Lent, Brown, & Hackett, 1994)을 지지하는 것으로, 부모와 친구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율성과 유능성을 느끼면서 진로미결정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Guay 등(2003)의 연구결과와 맥을 함께 한다. 즉 가족탄력성, 자기결정성(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진로결정 몰입 각 변수의 영향력이 아닌 통합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생의 가족탄력성, 자기결정성(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진로결정 몰입 모두 중요한 단일변수로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본 연구의 구조적 관계 속에서 바라본다면,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대학생들이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진로결정에 몰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생의 가족탄력성, 자기결정성(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진로결정 몰입이 순차적으로 이해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끝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의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지역의 학교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이 연구결과가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가족탄력성과 자기결정성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는 되었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몰입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족탄력성과 자기결정성 외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대훈 (2009). **교육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구정화 (2005). 한부모 가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 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계수 (2007). **New Amos 16.0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한나래.
- 김미옥 (2001). 장애아동가족의 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의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수리 (2004). 부모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순미 (2008).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진로결정물입 및 진로탐색행동의 구조 관계 분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아영 (2002).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른 학습동기유형 분류 체계의 타당성. **교육심리연구**, 16(4), 169-187.
- 김아영 (2010). **학업동기 -이론, 연구와 적용-**. 서울: 학지사.
- 김인자 (2005). 가족레질리언스가 한부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주 (2007). 부모자녀관계와 자기결정성 요인들이 대학신입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1(3), 539-555.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with AMOS17.0**. 서울: 학지사.
- 민현순 (2007). 뇌손상자 가족적응 향상을 위한 가족탄력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미진 (2006).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청소년의 진로정보탐색행동 예측모형.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완성 (2002). 고교생의 진로자아효능감,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변인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지현 (2009). 중년기의 가족스트레스 및 가족탄력성이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병렬 (2007).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람.
- 서명석 (2005). 장애인 형제의 사회적응에 관한 가족탄력성 효과.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종호, 진성조, 김연제 (2010). 지각된 부모의 학업지원, 성취기대, 일상통제가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자기결정성 동기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4(1), 121-137.
- 손은령, 손진희 (2005).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 - 사회 인지적 진로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99-417.
- 송자경 (2003). 간절아동과 가족의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난미 (2005). 한국대학생의 사회인지 진로선택 모형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명희, 조운정 (2006). 교사관심사를 통해 살펴본 교사의 자기결정성 및 내재적 동기. **교육심리연구**, 20(4), 765-784.
- 오승아 (2000). **장애아동가족의 resiliency model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수희 (2004). 가족탄력성이 치매노인의 부양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 (199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학, 이학주 (2000). 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 이상희 (2005). 대학생의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진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애 (2004). 만성질환아동가족의 가족 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주희, 정현주 (2009). 가족스트레스가 자폐성 장애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아동학회지**, 30(4), 15-31.
- 이지현 (2005). 사회적 지지 정도가 정신 장애인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혜 (2009). 예비교사들의 자아개념, 자기결정성과 교사신념과의 관계. **한국교육연구**, 26(3), 119-139.
- 이득연 (2004).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관계. - 진로결정수준별 공변량구조 분석.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태정 (2003). 몰입경험이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결정효능감에

-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현림 (2007). **진로상담**. 서울: 양서원.
- 이혜진 (2005). 성격과 직업적 흥미와 관계에서 사회인지 능력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은미, 이명숙 (2002).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분석. **학생상담연구**, 1, 101-113.
- 장경문 (200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6(1), 185-196.
- 최동선 (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 요인 및 애착의 관계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소정 (2005). 가족체제유형에 따른 학습부진아의 자기결정능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정, 정철영 (2007).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 몰입과 가족변수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2), 161-183.
- 최수정 (2007).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 몰입과 가족변인에 관한 구조방정식모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주옥 (2004). 여대생의 자기결정성 수준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현은민 (2008). 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이 여성 한부모 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효과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3(4), 59-84.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임상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bery, B. H., & Eggebeen, A (1993). A Descriptive study of the self-determination skills and opportunities of youth with mental retardation. *Paper presents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Washington, DC.
- Abery, B. (1994). A conceptual framework for enhancing self-determination. In M. Hayden & B. Abery(EDs.), *Challenges for a service system in transition: Ensuring quality community experience for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p.345-380). Baltimore, Md: Paul H. Brookes.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3)117, 497-529.
- Blau, G. L. (1988). Further exploring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career commi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2, 284-297.
- Blustein, D. L., & Flum, H. (1999). A Self-determination perspective of interests exploration in career development, In M. L. Savicakas and A. R. Spokane (Eds.), *Vocational interests: meaning, measurement, and counseling use* (pp.345-368). palo Alto, CA: Davies-Black.
- Blustein, D. L. (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al processes and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2, 345-357.
- Blustein, D. L., & Stropher, D. C. (1987). Vocational hypothesis testing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1, 45-62.
- Blustein, D. L., Ellis, M. V., & Devenis, L. E. (1989).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wo-dimensional model of the commitment to career choices process [Monograp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 342-378.
- Chubb, N.H. & Fertman, C.I. (1992). Adolescents' perceptions of belonging in their families. *Families in Society*, 73, 387-394.
- Cook, C. C., Brotherson, M. J., Weigel-Garrey, C., & Mize, I. (1996). *Home to support the self-determination of children. self-determination across life span: independence and cho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Baltimore, MD: Pul H. Broodes Publishing Co., Inc.
- DeCharms, R. (1968). *Personal causation: the internal affective determinants of behavior*. New York: Irvington.
- Deci, E. (1995). *Why We Do What We Do*. New York: Penguin Books.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Y: Plenum.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4)11, 227-268.

- DeFraim, J. (2002). Global Perspective on Strong Families. *Building Family Strengths International Conference Proceeding Book*, June 12-14, Shanghai, China.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Y: Norton.
- Felsman, D. E., Blustein, D. L. (1999). The Role of Peer Relatedness in Late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54, 279-295.
- Flum, H., & Blustein, D. L. (2000). Reinvigorating the study of vocational exploration: A framework for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380-404.
- Fortier, M. S., Calleraud, R. J., & Guay, F. (1995). Academic motivation and school performance: Toward a structural model.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0, 257-274.
- Garnezy, N. (1991). Resiliency and Vulnerability to adverse developmental outcomes associated with pover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34, 416-430.
- Guay, F., Senecal, C., Gauthier, L., & Fernet, C. (2003). Predicting career Indecision: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165-177.
- Guay, P. L. (2003). Advertising and Marketing to Children NO. *January-March*, 63-67.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133.
- Harter, S., & Connell, J. P. (1984). A model of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and their self-perceptions of competence, control, and motivational orientation. In J. Nicholls(Ed). *the development of achievement motivation* (pp.214-250). Greenwich, CT: JAI Press.
- Hawley, D. R., & DeHaan, L. (1996). Toward a definition of family resilience: Integration life-span and family perspectives. *Family processes*, 35, 283-298.
- Hawley, D. R. (2000). "Clinical Implication of family resilience". *The America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9, 45-47.
- Henderlong, J., & Lepper, M. R. (1997, April). Conceptions of intelligence and children's motivational orientations: A developmental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Washington, DC.
- Kosciulek, J. F., McCubbin M. A. & McCubbin, H. I. (1993). A theoretical framework for family adaptation to head injury. *Journal of Rehabilitation*, 40-45.
- Lent, R. W., Brown, S. T. & Hackett, G. (1994). "Monograph: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5, 79-122.
- Lvesquea, J., Joannetea, b, Y., Mensourd, f, B., Beaudoinc, G., Leroux d., d, J.-M., Bourgoinc, P., & Beaugard. M. (2004), Neural Basis of Emotional Self-Regulation in Children. *Neuroscience*, (2)129, 361-369.
- Marcia, J. E. (1993). *Ego-identity: A Handbook for Psychosocial Research*, Springer-Verlag. New York, NY.
- Masten, A. S. (1994). Resilience in individual development: Successful adaptation despite risk and adversity. In M. Wang & E. Gordon (Eds.), *Risk and resilience in inner city America: Challenges and prospects*. (pp. 3-25). Hillsdale, NJ: Erlbaum.
- McCubbin. M. (1988). Family Stress, resources and family types: Chronic illness in children. *Family Relations*, 37, 203-210.
- McCubbin, H. I. & Patterson, J. M. (1981). *Systematic assessment of family stress, resources, and coping: Tools for research, education, and clinical intervention*. ST. Paul, MN: Department of Family Social Science.
- McCubbin, H. I., McCubbin, m. A., & Thompson, A. I. (1993). Resiliency families: to role of family schema and appraisal in family adaptation to crises (pp.153-177). In T.H. Brubaker(ed). *Family Relations: Challenges for the future*.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MacCallum, R. C., Roznowski, M., & Reith, J. (1994). Alternative strategies for cross-validation of covariance structure model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9, 1-32.

- McCubbin, H. I. Patterson, J. & Wilson, L. (1980).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FILE)*. St. Paul: University of Minnesota.
- McCubbin, H. I., McCubbin, M. A., Thompson, A. I., Sae-young Han & Allen, Chad T. (1997). Families under stress : What Makes Them Resilient.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3)89, 2-11.
- Olson, D. H., Portner, J., & Lavee Y. (1985). *FACE III.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esota, st. Paul, Minesota.
- Osipow, S. H. (1983). *Theories of Career Development*.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J.
- Patterson, J. M. (2002). "Integrating Family Resilience and Family Stress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349-360.
- Phillips, S. D., & PaziENZA, N. J. (1988). History and theory of the assessment of career development and decision making. In W. B. Walsh & S. H. Osipow (Eds.). *Career decision making* (pp.1 - 31). Hillsdale, NJ: Erlbaum.
- Rutter, M. (1987).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1.
- Ryan, R. M., & Connell, J. P. (1989).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lization: Examining reasons for acting in two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749-761.
- Ryan, R. M., & La Guardia, J. G. (2000). What is being optimized over development?: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basic psychological needs across the life span. In S. Qualls & N. Abeles (Eds.), *Psychology and the aging revolution* (pp.145-172). Washington, DC: APA Book.
- Saks, A. M. & Ashforth, B. E. (2002). Is job search related to employment quality? it all depends on the fi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4)87, 646-654.
- Walsh (1998). *Strengthening Resilienc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Walsh, F. (2002). A Family Resilience Framework : Innovative Practice Applications. *Family Relations*, (2)51, 130-137.
- Werner, E. E. (1989). Risk, Resilience, and recovery: Perspectives from the Kauai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503.
- Whiston, S. C., & Keller, B. K. (2004). The influence of the family of origin on career development: A review and analysi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2, 493-568.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가족탄력성, 자기결정성, 그리고 진로결정 몰입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충북과 경북 소재 4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77명이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가족탄력성은 자기결정성(자율성, 유능성, 관계성)과 진로결정 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탄력성이 높은 환경의 대학생일수록 더 자기결정적이고, 진로결정에 대한 몰입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대학생의 자기결정성(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은 진로결정 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더 자기결정적인 대학생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진로결정 몰입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대학생의 가족탄력성은 자기결정성(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통하여 진로결정 몰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가족탄력성이 진로결정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자기결정성(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논문접수일자: 2011년 10월 6일, 논문심사일자: 2011년 10월 11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10월 24일